

한·美·유럽 등 합병통한 '업계 1위' 쟁걸음

글 | 신경희(조은커뮤니케이션)



이동전화 서비스, 이동전화 단말기 제조업체를 불문하고, 모바일 분야의 인수합병은 무선통신 서비스 경쟁이 본격화될수록 그 빈도수를 더해왔다. 이러한 대형 인수합병(M&A)을 통해 지금의 왕성한 모바일 시장 판도가 형성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생존을 매개로 윈윈을 추구하기 위해 이들 업체간 인수합병은 M&A 당시 최선의 방안으로 선택됐지만, 결정의 옳고 그름 여부는 역사에 맡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동전화 사업자

■미국 이동전화 서비스 사업자 동향

벨사우스+SBC : 벨사우스와 SBC간 무선사업 통합 발표는 2000년 4월에 있었고, 그 결실은 10월 맺어졌다. 이로인해 탄생한 회사가 현재 미국의 1위 사업자인 싱귤러와이어리스이다. 2000년 당시 싱귤러의 태동으로 이 회사가 확보한 고객은 1900만명이었다.

벨애틀랜틱+보다폰 : 미국 최대 휴대폰 사업자로 군림했던 버라이즌 와이어리스는 미국의 벨 애틀랜틱과 영국 보다폰이 2001년 4월 합작 설립한 CDMA방식 서비스 사업자. 그 해 연말 2900만명의 가입자를 보유하는 것으로 명실상부한 미국내 1위 사업자로 부상했다.

싱귤러와이어리스+AT&T와이어리스 : 미국내 이동전화 서비스 사업자간 최대 빅뱅으로 기록된 인수 합병이었다. 벨사우스와 SBC의 무선사업부가 통합돼 만들어진 당시 2위 이동전화 사업자인 싱귤러가 3위 사업자 AT&T와이어리스의 인수를 선언한 것은 2004년 2월. 이에 따라 싱귤러는 당시 460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케 됐다. 양사 합병은 작년 연말 공식적으로 이루어졌고, 현재 가입자는 5000만명을 돌파했다.

스프린트PCS+넥스텔 : 미국 이동통신 3위 사업자인

스프린트와 5위 넥스텔의 합병 발표는 2004년 하반기 진행됐다. 합병회사 명칭은 '스프린트 넥스텔'로 정해졌다. 이들도 '싱글러+AT&T' 간 합병만큼이나 대형 빅딜이었다. 작년 말 당시 스프린트는 미국에서 2320만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3위 업체이고, 넥스텔은 PTT(Push-to Talk) 방식 서비스를 내세워 1680만명의 가입자를 보유했던 터라 양사 4000만명의 가입자는 미국내 싱글러 와이어리스 가입자 4700만명과 버라이즌와이어리스 가입자 4210만명에 이은 3위의 위치를 명확히 하는 것.

■유럽 이동전화 서비스 사업자 동향

도이치텔레콤+원2원 : 유럽 최대의 통신업체인 도이치텔레콤이 영국의 이동전화 업체 4위인 원2원을 인수하는 한편 미국 케이블 TV 회사인 미디어원으로부터 중유럽·동유럽과 러시아의 이동전화 사업을 인수한 것은 99년이였다.

KPN&벨사우스+E플러스 : 네덜란드의 대형 통신·전화회사인 KPN과 미국의 지역통신 대기기업인 벨사우스가 독일 3위 이동전화 서비스 사업자였던 E플러스를 인수한 것은 1999년 12월이였다.

프랑스텔레콤+오렌지+E플러스 : 보따폰 산하 오렌지를 프랑스텔레콤이 쟁취한 시기는 2000년 6월이였다. 인수 금액은 432억 유로였다. 오렌지는 영국내 3G 면허를 획득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를 계기로 프랑스텔레콤은 자연스럽게 영국의 3세대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일본 이동전화 사업자 동향

한통프리텔+한솔엠닷컴 : 한국통신프리텔 한국통신 엠닷컴이 합병에 서명한 것은 2000년이였다. 양사 합병은 국내 이동전화 서비스 사업자간 최초 합병이었으며, 공룡 SK텔레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대형 사업자 탄생이라는 데 의의를 가졌다.

SK텔레콤+신세기통신 :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최종 합병은 2002년 1월이었지만, 양사는 지난 99년 12월 기업결합을 단행한 바 있다.

DDI+IDO+KDD : 일본 제2 이동통신업체인 DDI와 국제통신 최대기업인 KDD, 도요다 자동차 계열의 이동전화 업체인 일본이동통신(IDO) 3사가 합병해 'KDDI'를 탄생시킨 것은 2000년이였다. DDI는 교세라가 대주주인 일본 제2 이동통신업체였고, KDD는 국제통신에서 일본 최대기업이었고, 일본이동통신(IDO)은 도요다 자동차가 62.8%를 출자한 회사였다.

휴대폰 제조업체

■세계 휴대폰 제조업체 동향

소니+에릭슨 : 소니가 에릭슨의 휴대폰 사업 부문을 인수해 소니에릭슨을 탄생시킨 것은 2001년 초였다. 2000년도 750만대의 이동전화기를 판매해 세계 10위에도 들지 못한 소니는 당시 시장점유율 2위인 에릭슨(4300만대 판매)과 이동전화 합작사를 50대50의 지분으로 설립키로 했던 것.

벤큐+지멘스 : 지멘스가 대만 최대 규모의 휴대폰 제조업체인 벤큐(明基, www.benq.com)에 매각된 것은 올 6월이였다. 양사 계약에 따르면, 벤큐는 향후 5년간 지멘스 브랜드를 이용할 수 있으며, 휴대폰 부문 본사는 독일 뮌헨에 두게 된다. 지난해 휴대폰 판매대수는 벤큐가 1550만대, 지멘스가 5100만대였다.

모토로라+센도 : 모토로라가 영국 휴대폰 업체 센도를 인수해 휴대폰 업체간 인수합병을 가속화시킨 것은 지난 6월이였다. 모토로라가 법정관리에 있던 영국의 휴대폰 업체 센도 자산을 인수, 자사 모바일 디바이스 사업부에 편입한 것. 모토로라는 센도의 휴대폰 관련 지적재산 포토폴리오 외 영국과 싱가포르에 거점을 둔 연구개발팀까지 인수했다.

■ 국내 휴대폰 업체

모토로라+어필 : 모토로라와 어필텔레콤의 결합은 98년 11월 어필텔레콤이 3500만 달러의 외자유치로 모토로라와 파트너 관계를 맺을 때부터였다. 이로 인해 모토로라는 어필의 지분 51%를 인수한 것.

세원텔레콤+맥슨전자 : 세원텔레콤이 맥슨을 인수한 것은 2000년 7월이었다. 당시 세원텔레콤은 맥슨 전자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채권단이 출자전환을 통해 주식으로 전환하는 1400억원 상당의 맥슨전자 주식 2800만주를 600억원에 인수하는 조건으로 맥슨전자 인수 최종계약을 체결했다.

팬택+현대큐리텔 +SK텔레텍 : 팬택은 국내 단말기 시장에서 대형 인수합병으로 유명하다. 큐리텔 인수와 SK텔레텍 인수가 대표적이다. 2002년 팬택은 현대큐리텔이란 메이저 휴대폰 회사를 인수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 팬택의 놀라운 행보는 올 5월 SK텔레텍 인수를 선언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PDA 제조 및 OS업체 동향

HP+컴팩 : HP가 컴팩컴퓨터를 합병한 건 2002년 4월. 이들의 합병은 PC, 서버, 프린트, PDA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지도를 가진 기업간 이루어졌다는 데 화제가 됐다.

팜+핸드스프링 : 팜의 핸드스프링 인수는 2003년 6월 이루어졌다. 팜OS를 개발하는 팜소스와 팜솔루션 그룹 등 2개사로 구성된 팜은 핸드스프링과 팜솔루션 그룹을 합병해 새로운 회사를 만든 것.

액세스+팜소스 : 모바일기기용 브라우저 전문업체인 액세스가 팜소스의 주식 100%를 취득, 이 OS업체를 인수한 것 역시 9월이었다. 이로 인해 액세스는 자사 브라우저와 팜소스의 OS를 접목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됐다.

주요 솔루션 업체 동향

어도비+매크로미디어 : 어도비 시스템이 매크로미디어를 인수한 건 올 중순이었다. 어도비는 매크로미디어 전 주식을 매입하는 식(매크로미디어 1주=어도비 0.69주)으로 매크로미디어를 인수했다. 어도비는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등 제품과 전자문서 포맷인 PDF를 개발한 업체. 매크로미디어는 그래픽 제품에 강세를 보이면서 웹 콘텐츠의 플래시를 개발했다.

오라클+시벨 시스템즈 : 미국 오라클이 시벨 시스템즈를 인수한 건 지난 9월이었다. 오라클은 주당 10.66달러(총 58억5000천만불 규모)에 CRM선두업체인 시벨 시스템즈(Siebel Systems)를 인수했다. 이번 합병으로 오라클은 시벨의 CRM을 자사 차세대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인 '프로젝트 퓨전(Project Fusion)'에 편입시킬 예정이다.

EMC+레인피니티 : 정보저장 및 관리업체 EMC는 네트워크 파일 가상화 솔루션 업체 '레인피니티(Rainfinity)'를 올 중순 인수했다. 캘리포니아 새너제이에 본사를 둔 레인피니티는 이기종 NAS(Network Attached Storage)와 파일 시스템을 위한 가상화 솔루션분야의 선두업체로 이번 인수 규모는 약 1억 달러였다. 레인피니티는 업계 최초로 윈도, 유닉스, 리눅스 환경의 파일 시스템을 가상화 할 수 있는 표준기반의 솔루션을 개발한 업체이다.

썬+스토리지텍 : 썬마이크로시스템즈의 스토리지텍 인수는 지난 6월이었다. 썬은 이번 인수를 통해 종합적인 네트워크 컴퓨팅 분야를 비롯해 데이터 관리 부문에서 다양한 서비스 및 솔루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토리지텍의 총 인수 비용은 41억 달러 가량 정도이다. [K]